

2025년
설날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설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

주 음성 외에는

(통일 500)

보통으로

1. 주 음 성 외 에 는 참 기 뽐 없 도 다
 2. 나 주 께 왔 가 시 니 북 주 시 험 소 서
 3. 주 께 나 가 시 면 내 주 생 림 어 험 험 험
 4. 그 귀 한 언 약 을 이 루 어 주 되 시 고

날 사 랑 하 신 주 늘 계 시 읊 소 서
 주 함 께 계 시 면 큰 계 시 읊 소 서
 주 명 령 따 를 때 늘 계 시 읊 소 서

후렴

기 뽐 고 기 뽐 도 다 향 상 기 뽐 도 다

나 주 께 왔 사 오 니 북 주 읊 소 서 아 멘

기 도 말은이
성경말씀 시편 146편 1-5절 (구약 908쪽) 말은이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나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말은이

말씀나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새해가 되면 지난해의 묵은 것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마음과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의 도움이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귀인들은 결국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도움과 소망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는 다윗에게는 참 목자가 되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안정해 보이는 삶이라도,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지 않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참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나의 소망이요 도움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 539)

조금 빠르게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주에 수 뿐일세
 2. 무섭게바람 부는밤 물결이높이 설렐때
 3. 세상에 믿던 모든것 끊어질그날 되어도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앞에 죄올때

우 리주에 수 밖에는 믿 을이아 주 없도 다
 우 리주크 신 은혜에 소 망의맞 을 주리라
 구 주의인 약 믿사와 내 소망더 욱 크리라
 구 주의 의 를 힘입어 어 엇이바 로 서리라

후렴

주 나의 반 석 이시니 그 위에 내 가
 서 리 라 그 위 에 내 가 서 리 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